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10. 21.(토) 배포즉시 배포 2023. 10. 21.(토)

한국과 에티오피아, 수교 60주년을 맞아 무역, 투자, 산업 등 협력 기반 구축

- 「한-에티오피아 무역 촉진 협력 양해각서(MOU)」 등 3건의 양해각서 체결
- 에티오피아 볼레레미 산업단지 내 「섬유테크노파크 개소식」 개최

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0. 20.(금)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를 방문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입은행, 한국전력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, 산업기술진흥원 등 공공기관과 LG전자, SK가스, 포스코인터네셔널, 두산인프라코어, ㈜대동, 기계산업진흥회 등 민간기업 총 14개 기관 35명의 경제사절단을 인솔하여 양국 간 무역, 투자, 산업(섬유, 농기계) 분야 중심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.

방문규 장관은 이날 오후 데메케 메코넨 하센(Demeke Mekonnen Hassen) 부총리(총리 대행*)를 면담,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간 우호 증진, 무역·투자 및 산업 협력 확대와 함께 2024년 6월 한-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아비 아머드 알리 총리의 참석을 요청하였다.

* 의원내각제인 에티오피아는 아비 아머드 알리 총리(Adiy Ahmed Ali)가 장기간 해외 출장 중으로 내각 2인자인 부총리 데메케 메코넨 하센 외교장관이 권한을 대행 중

이에 하센 부총리는 “혈맹인 한국은 에티오피아의 본보기(롤 모델)로서 그동안 많은 분야를 배웠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배우고 싶은 나라”라고 하면서 한-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, LG전자의 에티오피아 현지 정보기술(IT) 교육훈련센터가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졸업생의 100%를 취업시키고 있으며, 신티에스, 영원무역 등 한국 기업이 8천 명의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하였다.

한편, 방문규 장관은 이날 오전, 게브레메스켈 찰라(Gebremeskel Chala) 에티오피아 통상지역통합부 장관과 「무역 촉진 협력 양해각서(MOU)」를 체결하여, 양국 간 교역 활성화, 기술·산업·디지털 분야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
* 주요 내용 : 협력 분야(교역, 공급망, 산업, 자원), 협력형태(민간 참여 확대, 무역장벽 완화, 경제사절단 파견 및 인적교류), 부속서(중소기업, 디지털, 물류 등 협력)

한편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는 에티오피아 투자청과 「투자진흥 및 무역·투자 협력 확대를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 양해각서*」를 체결하여 양국 간 투자 관련 정보 교류 및 전문인력의 상호 방문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
* 주요 내용 : 투자 환경 및 관련 규제 정보, 상호 무역 투자진흥 관심 분야 공동 정보 조사, 투자유치 및 무역 진흥 기술(노하우) 전수 및 훈련 (토론회(포럼), 연수회(워크숍)) 등

또한, 산업기술진흥원은 에티오피아 농업부와 「농기계 협력 양해각서*」를 체결하고 우리나라의 에티오피아에 대한 농업기계화 공적 개발원조**(ODA) 협력을 강화하고 식량 안보 기반 확충에 협력하기로 하였다.

* 주요 내용 : 「에티오피아 농기계연구개발(R&D)센터 조성사업('21~'26, 178.6억 원)」의 수행을 위한 공동 협력, 앞으로 농기계 사업의 지원 강화, 중고 농기계 유지 보수 기술 지원 등

** 농기계(경운기 34대, 트랙터 1대, 콤바인 1대)를 에티오피아로 운송 중이며, 앞으로 경운기 150대, 트랙터 30대, 콤바인 2대 추가 운송 예정('24~'26)

이번 방 장관의 에티오피아 방문 계기, 산업부 공적 개발원조(ODA) 사업인 「에티오피아 섬유테크노파크 개소식」이 10. 20.(금) 오후 에티오피아 산업부, 에티오피아 공단개발공사(IPDC) 및 산업기술진흥원(주관기관), 경북테크노파크, FITI시험연구원, 다이텍연구원(DYETEC)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.

'에티오피아 섬유테크노파크'는 아디스아바바 볼레레미 산업단지에 입주한 우리 섬유 기업(신티에스, 영원무역)이 에티오피아 수출에 크게 기여*하고 현지 채용인력을 현 8천 명에서 앞으로 2만 명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이번 개소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하산 모하메드 모알린(Hassan Mohammed Moalin) 에티오피아 산업부 차관은 섬유테크노파크는 양국의 대표적 산업·투자 협력사업(프로젝트)으로서 에티오피아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다.

* 신티에스(Shints)는 2014년 현지 법인 설립 후 야외활동복(모터사이클, 싸이클링 등)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(OEM) 수출 중, 에티오피아 3대 수출기업('22년), 현지 채용인원 5,800여 명('23. 10월)

담당 부서 <총괄>	통상협력국 중동아프리카통상과	책임자	과 장	권현철 (044-203-5720)
		담당자	사무관	김태진 (044-203-572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